

# 애국계몽운동가 申蕭堂의 생애와 신문독자투고

이 경 하 (서울대)

1. 머리말
2. 신소당의 생몰연대와 신분
3. 신문투고에 나타난 신소당의 애국계몽의식
  - 3.1. 1898년, 시국에 대한 관심
  - 3.2. 1906~1909년, 국민으로서의 자각과 실천
4. 맺음말 : 여성어문생활사적 위상

## 1. 머리말

○ 었던 녀인이 귀글을 지어 본샤에 보니며 자칭 평안도 녀노인이라 호엿  
논디 유리훈 말이 만키로 괴지호노라.

이것은 1898년 11월 5일자 제국신문 논설란의 첫 대목이다. 어떤 여인이 신문사에 글을 보냈는데 내용이 볼 만하여 게재한다고 했다. 말하자면 그 글은 독자투고인 셈인데, 투고자를 가리키는 “자칭 평안도 녀노인”이란 언급이 눈길을 끈다. 같은 신문 11월 10일자에 이 ‘평안도 녀노인’의 또 다른 투고가 실렸고, 이번에는 “평안도 안쥬 녀노인 신소당”이라는 투고자에 관한 좀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 있다. 투고의 내용은 당시 보편적인 애국계몽담론에 포괄되는 것들이다.

신소당은 구한말 애국계몽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여성운동가로 근대여성사 분야에서는 비교적 널리 알려진 이름이다. 1906년에서 1909년까지 각종 신문지상에 그 이름이 종종 거론되는바, 일찍이 박용욱은 신소당이 진명부

인회 회장 및 대안동 국제보상부인회 발기인으로 여성운동에 앞장섰으며 광동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에 힘쓴 선각자였음을 밝혔다.<sup>1)</sup> 이후 정경숙은 특히 진명부인회와 관련하여 신소당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신소당이 제국신문 등에 기고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sup>2)</sup> 그러나 신소당이 판서를 지낸 金奎弘의 부인이었다는 것 외에 개인적 사실은 거의 알려진바 없으며, 신문투고에 관해서도 누락 및 착오가 없지 않다.

대한제국기 신문의 독자투고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언론학 또는 역사학계에서 이루어졌다. 주로 독립신문을 대상으로 한 이들 연구는 대한제국 초기의 신문독자투고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sup>3)</sup>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다. 국문학계에서 신문독자투고는 개화가사의 작자층 문제와 관련되는데<sup>4)</sup> 그다지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 근대문학 성립기에 있어서 신문의 역할을 고려할 때,<sup>5)</sup> 신문독자투고가 갖는 문학사적 의의는 가사와 같은 특정 갈래에 국한되지 않는 듯하다. 특히 하층과 여성의 글쓰기 역사에서 신문독자투고의 위상은 재평가할 여지가 적지 않아 보인다.

본고에서는 우선 근대계몽기 신문들에 흠어져 있는 신소당 관련 기사들과 淸風金氏 및 平山申氏 족보를 토대로 신소당의 생몰연대와 신분을 추적한다. 그리고 1898년에서 1909년까지 모두 6회에 걸친 신소당의 신문투고가 애국계몽운동의 연장선상에 놓이는 실천적 글쓰기로 기능하고 있음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신소당의 신문읽기와 독자투고가 한국여성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재평가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1) 박용옥, 『한국근대여성운동사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p.106, p.126.

2) 정경숙, 「대한제국과 진명부인회의 조직과 사상」, 『대한제국연구』V,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86, pp.87~92.

3) 신문독자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표명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채백, 「독립신문 독자투고의 현황과 특성에 관한 연구」, 『인론과 사회』 3, 1994; 홍찬기, 「개화기 한국사회의 신문독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인론』 7, 1996; 서순화, 「독립신문의 독자투고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4) 김영철, 「개화기 시가의 창작계층」, 『근대문학연구』 1, 지학사, 1987.

5) 권영민은 한국근대문학이 대중매체의 힘을 입은 국어국문운동을 기반으로 성립되었다고 보았다.(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1』, 민음사, 2002, pp.33~34.)

## 2. 신소당의 생몰연대와 신분

독립신문이 창간된 1896년부터 대개의 민족지가 폐간하는 1910년까지 신소당의 신문투고는 모두 여섯 차례 확인된다. 1898년 제국신문에 2회, 1907년 대한매일신보에 2회, 만세보에 1회, 1909년 황성신문에 1회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소당의 신문투고 일람표]

번호	날 짜	투 고 지	계재란	표면	제 목	내 용
①	1898.11.5.	제국신문	논설	국문		부국강병과 보국안민을 위한 절용절검
②	1898.11.10.	제국신문	잡보	국문		시국에 대한 근심
③	1907.3.27.	대한매일신보 (국한문판)	잡보	국문	진부부용형 전스레서	진주 애국부인회와 부용의 애국심 칭송
④	1907.4.2.	만세보	기서	국문	기부용형서	上 同
⑤	1907.5.23.	대한매일신보 (국문판)	기서	국문		대한매일신보의 국문판 간행 축하
⑥	1909.10.20.	황성신문	잡보	국한문	申氏公函	광동학교 폐교 결정 규탄

자료①~⑥에서 투고자에 관한 신상정보가 담긴 대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었던 녀인이 귀글을 지어 본사에 보니며 자칭 평안도 녀노인이라 호엿  
논디 유리훈 말이 만기로 괴지호노라.
- ② 평안도 안주 녀노인 신소당은 쑤 괴지호노라.
- ③ 경성 대안동 스십통 스무소 신소당.
- ④ 신소당. 첩은 근본 평안도 안주사름으로 김판서 규홍씨를 좃스호와 경  
성에 거성한 광음이 습십년이라.
- ⑤ 스립광동학교장 신소당.
- ⑥ 前 光東學校長 申蕭堂이 本社에 公函히기를, (하략).

여기서 자료①②와 ③④⑤⑥이 시기적으로 약 10년의 차이가 있어 투고자가 동일인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먼저 ①②는 동일인에 의한 투고라고 짐작할 수 있다. ①②는 시기적으로 5일밖에 차이가 없고 평안도 여노인이 ‘또’ 기재한다고 했으니, 투고자가 동일인임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또한 ③④⑤⑥은 ‘신소당’이라는 표지가 뚜렷하고 서로 시기적으로 가까워 역시 동일인으로 간주된다. ①②의 신소당과 ③④⑤⑥의 신소당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②와 ④에 각각 ‘평안도 안주’라는 지명이 병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결국 ①에서 ⑥까지 투고자는 모두 동일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첫째, 申蕭堂은 고향이 평안도 안주이고, 둘째, 夫君이 판서를 지낸 김규홍이며, 셋째, 光東學校의 교장직을 맡았던 여성이다. 넷째, 1907년 3~4월경에는 경성 대안동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 서울에 거주한 지 30년 정도 되었다고 했다. 남편인 김규홍이 판서를 지냈다 하니, 김규홍이란 인물을 매개로 하면 신소당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9세기 말~20세기 초에 판서를 지낸 김규홍이란 인물은 한 명뿐이어서 추적이 용이하다. 본관이 淸風, 字가 華一인 金奎弘(1845~1905)<sup>6)</sup>이 그 사람이다.

淸風金氏世譜는 1637년에 金堉이 간행한 丁丑譜, 일명 玉河譜에서 비롯되어 1989년 간행본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續刊되었다.<sup>7)</sup> 신소당에 관한 기록이 있을 법한 1919년, 1958년, 1989년 간행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⑧ 室平山申氏, 癸丑生, 父孝麟.<sup>8)</sup>

6) 청풍김씨 判奉常寺事公派의 23세손으로, 金學性의 아들이자 金東獻의 손자이다. 1864년 (고종1)에 增廣文科에 급제하였고, 전라도·경기도·황해도 관찰사와 형조·예조·공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894년에 면직되었다가 아관파천 이후 다시 등용되어 중추원의관, 의정부참정, 궁내부특진관, 태의원경, 장례원경, 시종원경, 귀족원경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7) 丁丑譜(1637)·庚午譜(1750)·丁巳譜(1857)·己未譜(1919)·戊戌譜(1958)·己巳譜(1989)가 그것이다.(『淸風金氏世譜』(서울: 회상사, 1989)의 跋文, pp.41~45. 참조)

8) 金允植 刊編, 『淸風金氏世譜』卷1, 京城: 淸風金氏大同譜所, 1920.; 『淸風金氏世譜』(간행자·간행지 미상) 卷3, 1958, p.77.

⑥ 室平山申氏, 號簫堂, 己巳一八六九年五月十二日生, 國債報償婦人會長・女子教育會長・進明婦人會長・養貞女子教育會長・光東學校長・養貞女學校校長・養閨義塾校長歷任, 庚午一九三〇年四月二十日卒, 火葬, 父孝麟<sup>9)</sup>

먼저 특기할 사항은 족보 ㉑(1919·1958)와 ㉒(1989)가 기록상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㉒가 ㉑보다 훨씬 자세할 뿐 아니라, 신소당의 출생연도에 차이가 크다. 癸丑生이라면 1853년이고 己巳生이라면 1869년이니, 16년의 차이가 있다. 부친의 이름은 申孝麟으로 동일하다.<sup>10)</sup>

⑥의 기록에 따르면, 號가 ‘簫堂’인 平山申氏는 1869년 5월 12일에 태어나 1930년 4월 20일에 죽었다. 국채보상부인회·여자교육회·진명부인회·양정여자교육회의 長을 지냈고, 광동학교·양정여학교·양윤의숙의 교장을 역임했다는 평범하지 않은 이력이 족보에 올라 있어 눈길을 끈다. 양정여학교와 양윤의숙의 교장을 지냈다는 기록을 제외하고, 신소당의 다양한 경력은 1906년~1909년 여러 신문지상에서 확인되는 바다.

그런데, ㉒의 기록을 전면 신뢰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첫째, 신소당의 출생연도에 관한 의문이 든다. 족보에 따르면, 신소당은 김규홍과의 사이에 4男을 두었다.<sup>11)</sup> 첫째 아들 鎭赫이 태어난 해는 ㉑㉒에 모두 1881년으로 되어 있는데, ㉒의 기록에 따르면 그 때 신소당의 나이는 13세다. 물리적으로 임신이 전혀 불가능한 나이는 아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1853년 癸丑生이라는 ㉑의 기록에 따르면, 29세에 첫아들을 낳은 셈이니 당시로서는 오히려 첫 출산이 늦은 편이다.

앞서 인용했던, 제국신문 등에서 밝힌 신소당과 관련된 투고자의 신상정보를 다시 상기해 보자. 1907년에 신소당은 자신이 “김관서 규홍씨를 종스혹와 경성에 거성한 광음이 숨십년이라”(자료④) 했다. 1853년생이라면 1907년 당시 신소당은 55세이니 30년 전이면 25세를 전후하여 김규홍의 첩

9) 『淸風金氏世譜』 권2, 서울: 회상사, 1989, pp.526~527.

10) 신소당의 부친 申孝麟에 대한 별도의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다. 平山申氏世譜는 丙子譜(1636) 이래 모두 다섯 차례 간행되었는데, 1976년 발간 大同譜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孝麟이란 이름은 19세기 평산신씨 남성의 보편적인 항렬자를 쓰지 않았다.

11) 鎭赫(1881~1941), 鎭濤(1885~1935), 鎭奭(1888~1917), 鎭珪(1896~)이 그들이다.

이 된 것이고, 29세에 첫아들을 낳은 셈이다. 반면에, 신소당이 1869년생이라면 1907년 당시 39세이고, 10세 즈음에 김규홍의 첩으로 들어가서 13세에 출산을 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1898년 투고에는 신소당을 일러 ‘자칭 평안도 여노인’(자료①②)이라고 했다. 1869년생이라면 1898년 당시 30세이고 1853년생이라면 46세다. 전통사회에서 ‘노인’이라 칭하는 나이를 아무리 낮추어 잡아도 30세의 ‘여노인’은 무리인 듯하다.

족보 ⑥에서 미심쩍은 또 한 가지는 ‘신소당’의 한자표기에 관한 것이다. 족보상에는 호가 ‘簫堂’이라 했는데 만세보, 황성신문 등 국한문혼용 신문에서 신소당 관련 기사들은 모두 ‘蕭堂’으로 표기하고 있다. 1989년 발행 족보의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짐작되지만, 1919년·1958년 간행본과 달리 신소당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새로 첨부한 1989년 간행본의 기록을 간단히 무시해 버리기도 어렵다.

그런데 대한제국기의 신문들에서 ‘김규홍씨의 부인’으로 명명되는<sup>12)</sup> 신소당은 사실 김규홍의 副室이었다. 일찍이 박용옥은 신소당을 ‘兩班大家의 婦人’이라고만 했고,<sup>13)</sup> 정경숙은 신소당을 비롯하여 진명부인회의 핵심 멤버들이 대부분 부실층 여성들이었다고 추론한 바 있다.<sup>14)</sup> 신소당은 1910년 양정여학교 지원을 위한 양정여자교육회를 설립할 당시 評議長을 맡은 바 있는데,<sup>15)</sup> 양정여자교육회는 金惠卿·崔淑子 등 大官의 別室들이 천대받는 첩의 신분을 원통히 여겨 설립한 여성단체라는 특징을 갖는다.<sup>16)</sup> 신소당이 부실이었음은 청풍김씨세보를 참조할 때 그 진위가 명확해진다.

족보(㉔㉕)에 근거할 때, 신소당은 김규홍의 부실이었고 김규홍의 元配는 閔致序의 딸 驪興閔氏(1843~1914)다. 족보에서 ‘配’와 ‘室’을 구분했던 관례에 따라<sup>17)</sup> 여흥민씨는 ‘配’로, 평산신씨는 ‘室’로 구분되어 있다. 여흥민

12) 예컨대, “고 김판서 규홍씨의 니실 신소당”(1907.3.16. 『光東學校』, 『제국신문』), “安洞 故 判書 金奎弘氏 夫人 申蕭堂氏”(1907.5.8. 『婦人設校』, 『만세보』)라고 칭한다. 신문에서 신소당을 첩이라든가 부실이라고 명명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13) 박용옥, 앞의 책, p.106.

14) 정경숙, 앞의 논문, p.89.

15) 1910.5.7. 『養貞女子教育會』, 『황성신문』

16) 박용옥, 앞의 책, pp.109~110.

17) 配·室의 구분법에 대해 ‘凡例’의 규정을 참고하면 이와 같다. “前例副室不載於譜, 然有子

씨가 72세까지 수를 누렸으니, 신소당이 김규홍의 부실이 된 것은 본처인 여흥민씨가 생존해 있을 때였다. 신소당은 김규홍이 喪妻하고 얻은 後配가 아니라, 원배가 살아 있을 때 취한 부실인 것이다. 여흥민씨가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음을 상기할 때,<sup>18)</sup> 김규홍이 후사를 보기 위해 신소당을 부실로 들었을 가능성을 일단 점쳐볼 수 있다. 그럴 경우 신소당의 생년은 1853년보다 1869년이 개연성이 높다. 후사를 얻기 위해서라면 20대보다 10대, 가능한 어린 처녀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소당이 기녀출신이라면 사정이 또 다르다. 1853년생일 경우, 본래 기녀였던 신소당이 25세 전후한 시기에 김규홍의 부실로 들어왔었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는 것이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한창일 때, 신소당이 대한매일신보와 만세보에 투고한 ‘부용 형에게 보내는 편지’(자료③④)에는 기녀인 부용에 대해 신소당이 일종의 동지애를 느끼고 있음을 엿보게 된다.<sup>19)</sup> 또한 고관대작의 부인으로서 왕성한 애국계몽활동과 신문투고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평안도/기녀’라는 출신성분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요약하면, 신소당은 1853년 또는 1869년에 태어나서 1930년에 죽었다. 고향은 평안도 안주이고, 약 1877년경에 김규홍의 부실이 되었다. 경성에 거주하면서 1881년에서 1896년 사이에 아들 네 명을 낳았다. 1881년 첫 출산을 한 나이, 1907년 대한동 국채보상부인회와 진명부인회 등 각종 여성단체에서 회장직을 맡았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1853년생이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또한 김규홍의 부실이 되기 전에 기녀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者, 書之爲宜, 且前譜, 嫡稱配庶稱室, 死稱配生稱室, 今則無論嫡庶生死, 書之以配, 則副室之稱室, 庶無混同之嫌, 但無子女者不書, 改適者不書, 修單所無者亦不書.”(1919년 간행 청풍김씨세보); “前譜에는 嫡室을 配로 副室은 室이라 하였으나 지금은 人家譜牒에 庶字를 없이함으로 配室을 莫論하고 配로 써서 室과 庶를 없이하였다. (但) 元配가 生存한 後配와 元配보다 先卒한 後配 혹은 元配가 公(男便)보다 後卒한 後配는 不得已 室字로 써서 正當性을 表現하였다.”(1989년 간행 청풍김씨세보, p.50)

18) 여흥민씨는 슬하에 1남1녀를 두었다. 신소당이 첫아들 鎮赫을 낳은 이듬해 1882년, 여흥민씨는 나이 마흔에 아들 鎮肅을 낳았다.

19) 이에 관해서는 3.2장에서 상론한다.

신소당의 신문투고가 실린 것이 모두 여섯 차례라고 했는데, 그 외에 투고자가 신소당일 가능성이 있으나 단정하기는 어려운 글이 한 편 더 있다. 제국신문 1898년 11월 10일자에는 “평안도 안주 녀노인 신소당은 또 괴지호노라” 하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에 이어서 “엇던 유지각훈 시고을 부인의 편지”란 제목의 독자투고가 실려 있다. 이 ‘시골 부인의 편지’는 11월 7일자 제국신문 논설에서 첩의 신분인 여성을 모두 “행동 처신이 탕잡한 계집들”로 몰은 데 대한 일종의 반박문이다.<sup>20)</sup> 투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시골 부인’이 첩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으나,<sup>21)</sup> “첩이라도 승처후 후 드러와서 고락을 갖치 격고 봉제스 접빈직에 자식 낫코 일부종스흐는 첩이 부인만 못흐릿가”라고 반박한 이 ‘시골 부인’이 곧 신소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신소당은 1898년 11월 당시 서울에 살고 있었고 ‘상처한 데 들어간’ 첩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글이 신소당의 투고일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으나, 일단 본고에서는 ‘어떤 유지각훈 시골 부인’의 글은 신소당이 아닌 다른 여성독자의 투고로 간주하고 논외로 한다.

### 3. 신문투고에 나타난 신소당의 애국계몽의식

#### 3.1. 1898년, 시국에 대한 관심

신소당의 첫 번째 투고는 1898년 11월 5일자 제국신문에 실렸다. “날마다 신문 보니 논설마다 절담일세”로 시작하는 이 글의 첫 대목은 신소당이 애국계몽기의 보편적 담론인 富國強兵과 輔國安民, 이를 위한 開明進歩의 논리에 매우 친숙함을 보여준다. 대한의 백성들이 同心合力하여 속히 개명진보를 이루는 것이 곧 강대국의 침략을 물리치고 忠君愛國하는 길이라고 했다.<sup>22)</sup> 날마다 신문의 논설을 읽는다는 신소당은 당시 바쁘게 돌아가는

20)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줄고, 「제국신문 여성독자투고에 나타난 근대계몽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 2004.6.(간행예정) 참조.

21) 정경숙은 ‘시골 부인의 편지’를 신소당의 투고로 보고, 그 내용을 토대로 신소당이 부실이라고 추론하였다.(정경숙, 앞의 논문, p.88)

시국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정치적·사회적 현안들에 대해 일정 정도의 의견을 갖추고 있는 듯하다. 11월 10일자 제국신문에 실린 두 번째 투고에는 독립협회·만민공동회와 관련하여 1898년 10월을 전후로 급박하게 돌아가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신소당의 관심이 잘 드러난다.

주지하다시피, 1898년 가을은 9월 11일 金鴻陸毒茶事件<sup>22)</sup>을 발단으로 하여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던 시기다. 국왕 암살미수사건이 터지자 독립협회는 즉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관계 대신들에게 책임을 묻고, 나아가 정부 관료들의 부정·부패·무능을 규탄하는 7大臣 탄핵운동을 전개하였다. 독립협회와 황국중앙총상회가 중심이 되어 7대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합동상소를 계속해서 올리는 한편,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연좌시위가 仁化門 앞에서 주야로 계속되었다. 국왕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등교거부와 상인들의 철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 7대신은 해임되고 10월 12일 朴定陽 내각이 구성되기에 이른다.

그런데 10월 20일에 고종이 ‘언론과 집회를 엄격히 통제한다’는 요지의 조칙을 내리면서, 官權과 民權의 대립은 극으로 치닫게 된다. 독립협회는 언론·집회의 자유가 인민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상소를 다시 올렸고 마침내 국왕의 조칙을 번복시켰다. 10월 29일에는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尹致昊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獻議6條를 上奏하는데, 이튿날 고종이 이를 수락하고 민의에 부합하는 5개조 詔勅을 반포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정세는 다시 뒤집혀서 11월 4일에는 독립협회의 해산과 주도인물의 검거 명령이 떨어지고, 11월 7일에 李商在 등 독립협회원 17명이 체포·투옥된

22) “날마다 신문 보니 논설마다 절담일세. 남조로 성세하야 충의가 업게드면 남조라 할 것 잇소. 남조로 성겼거든 대장부 스텍호호. 스텍이라 호는 거슨 충효의리 웃듬이라. 충효의리 품어스면 두려울 것 전혀 업소. 충성 충 국게 잡아 보국안민 호옵세다. 나라이 티평호고 빅 성이 안은호면 그 아니 조홀잇가. 습천리 우리 강산 격양가를 불르라면 부국강병 속키 되 게 절용절검 호오소서. 절용절검 호오시면 부강이 될 듯호호. 대한 텃디 창성들은 동심합력 호오소서. 기명진보 속키 하야 강국침노 밧지 마오. 기명이 더디 되면 습천리 가난보 될 듯. 독립협회 연설 소문 절절이 충군이오 스스이 인국이라. (하략)”(1898.11.5. 『제국신문』)

23) 김홍륙독차사건이란 김홍륙이 하수인을 시켜 고종에게 독차를 올린 국왕암살미수사건이다. 김홍륙은 러시아 공사관 통역으로 정치에 깊이 관여한 바 있는데 고종의 미움을 받고 유배된 상태였다.(유영열, 『대한제국기의 민족운동』, 일조각, 1997, p.13)

다.<sup>24)</sup> 11월 10일자에 실린 신소당의 두 번째 투고는 이 당시 급박한 정세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피력한 것이다.

[자료②] 수일 소문 드러보니 독립협회 혁파 되고 만민공동회라 하였더니 공동회라 하는 거는 더한 빅성 아니릿가. 더한 빅성 도엿거든 군명승순홀 거시나 군명을 억의와도 올흔 일은 직간하네. 우리 조선 삼천리를 티도피서 어드신 후 공명지도 본바듬서 몇빅년 나리시다 치란이 유수하야 갑오란리 낫스온즉 나라이 불안하고 빅성이 도탄될 제 기명홀 줄 아랏겠소. 성덕이 높고 크스 대황테 되읍 신후 즈쥬를 홀옵서서 독립문 세은 후에 신민이 합심하여 독립협회 창설홀 제 혁파될 줄 알 수 잇소. 혁파가 되엿기로 아주 혁파될 니 잇소. 군명을 거역홀 듯, 대황테 폐하 근심 편하실 니 계실잇가. 인민근심 계시오나 업칙을 너리옵서 창성의 굿센 모습 보시즈고 나리시듯, 만민에 공동회로 모혀 드는 회원들은 보국안민 할망으로 죽을 스즈 심주하야 통곡이절하다 하니, 치우홀 녀즈로되 소문 듯고 눈물 나오. (중략) 심중소회하라 홀죽 눈물계워 못하겠소.

고종황제의 집회 엄금 조칙과 독립협회 금칙 조서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불복한다는 소식을 신소당 역시 신문이나 풍편을 통해 접했을 터이다.<sup>25)</sup> 신소당은 대한의 백성들이 君命을 어기면서까지 계속해서 집회를 열고 直諫하는 것은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고, 보국안민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통곡에절이라 평했다. “독립협회를 혁파하고 충군이국 하는 사 랫들을 가두었다고”<sup>26)</sup> 하지만 독립협회가 완전히 혁파될 리 없다는 낙관론을 폈다. 또한 황제가 그러한 칙령을 내린 것은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굳은가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첫 번째 투고는 보국안민·부국강병을 위한 節用節儉의 정신을 특히 강조하여 주목된다. 신소당은 단순한 개인적 차원의 절약이 아니라 학교 운영과 나라살림에 있어서 절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24) 위의 책, pp.13~15.

25) 예컨대, 제국신문의 경우 10월 22일자 잡보란에 집회를 금한다는 조칙이 실렸고, 11월 7일자 별보란에 독립협회 혁파 소식이 실렸다.

26) 1898.11.7. 「만민공동회소견」, 『제국신문』

[자료①] ④ 녀학교 회원들은 깃히 생각하여 보오 국지가 꺾절헌디 태국신문에 난 것 부족 탁지로 지출호 돈 스천 원이 적준커든 량삭 경비 쓴다 하니 엇지들 요량호오. 스천 원 되밧치고 나라에서 예산호와 학교 설치호게 호되 회원들에 숙식을량 처소에서 호게 호고 공일이면 집에 와서 의복 님고 가게 호되 대한국 필육으로 검소호게 님게 호오. 규칙을 엄히 호야 방탕죽염 업게 호고, 학원 중에 호스호면 회장이 걱정호고 걱정호야 안듯거든 회중에 축출호면 괴강이 엄정호고 공부가 착실호듯. 아모도록 성취호야 외국 치소 밧지 마오. 각국부인 보조금은 설교위회 준 거시니 학교시종 업게드면 그 치소 어이호리. 학교가 굿게 되면 외국에도 밧치 날 듯. ⑤ 십 칠일 괴원절에 여러 만량 나렀다니, 이 생각 호호진디 그 돈 도로 밧치고서 각회와 각부에서 준비호여 놀아스면 외국 밧시 적소를 듯. 남의 치전 만스오면 필경 갑홀 터인즉 무엇스로 갑홀잇가. 국가던지 스가던지 밧 없어야 지탱호오. 심중소회 다 호라면 출언이역이 된 듯.

여기서 신소당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자신의 소견을 말하고 있다. 먼저 ④는 여학교 운영에 관한 것이다. 신소당은 11월 2일자 제국신문에서 여학교 설립에 필요한 11·12월 두 달치 경비를 학부에서 탁지부에 청구했다는 내용의 기사<sup>27)</sup>를 읽었던 모양이다. 이와 관련해서 신소당은 여학교 회원들에게 절용절검을 학교의 운영방침으로 삼으라고 충고하고 있다. 회원들의 숙식이나 의복 등 여학교 운영에 있어서 실제로 돈이 드는 문제들에 대해, 규칙을 엄격히 하여 회원과 학생들이 사치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신소당의 생각이다. 여기저기서 보조금을 받아 학교를 설립해 놓고는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외국의 비웃음을 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⑤는 繼天紀元節<sup>28)</sup>의 경비사용에 관한 소견을 피력한 것이다. 제국신문에는 계천기원절인 10월 31일을 전후하여 경축행사에 관한 소식을 ‘잡보’란에 몇 차례 실었다. 내용인 즉 황제가 경축행사에 소용되는 경비를 각 부와

27) “학부에서 녀학교 설치호는 경비 스천원을 지출호여 달나고 탁지부로 조회 호엿다논디 금년 십일월 부터 십이월 까지 쓸 경비라더라.”(1898.11.2. 『제국신문』, 잡보)

28) 1897년 10월 12일에 원구단에서 황제즉위식이 있었는데, 같은 해 12월에 황제즉위일을 繼天紀元節로 정하였다. 1898년 10월 31일에는 계천기원절을 기념하여 제국신문도 휴간하였다.

협회에 내렸다는 것이다.<sup>29)</sup> 이에 대해 신소당은 각 부와 협회가 받은 돈을 되돌려주고 자비로 행사를 치렀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대한제국은 국가 재정이 궁핍하여 외국에도 많은 빚을 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란 것이다.<sup>30)</sup> ‘私家든 國家든 빚이 없어야 산다’는 이 한 마디가 소박하지만 확실한 신소당의 경제관념을 대변하고 있다.

### 3.2. 1906~1909년, 국민으로서의 자각과 실천

대한제국기에 애국계몽의 기치를 내걸고 활발하게 일어났던 여성운동은 여성교육운동과 국채보상운동으로 대별할 수 있다.<sup>31)</sup> 신소당은 그 양면에서 모두 두드러진 활동을 했던 이 시기 대표적인 여성운동가이다. 1906년경 광동학교 설립, 1906년과 1907년의 여자교육회 활동, 1907년 진명부인회 설립, 1910년 양정여자교육회 및 양정여자학교 활동은 모두 교육에 중점을 둔 애국계몽운동이었다.<sup>32)</sup> 신소당이 자신의 거주지인 大安洞 40통 4호에 사무소를 설치한 국채보상부인회는 1907년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

29) “음력 이월 십칠일은 작년 이날 황상폐하께서 황태 존호 받으신 계던과원절인고로 그날 외부에서 잔치를 비설하고 각국 공령스들을 청혼다 하더라.”(1898.10.27.) ; “지명일 계던과원절에 각부부와 각협회에서 경축회를 기행혼다 하논디, 황상께서 각부에는 다 일백원씩 나리시고 군부에는 스백구십륙원을 나리시고 독립협회에는 이백원을 나리시논디 회원 길영수씨가 평기하여 가지고 나왔더라.”(1898.10.29.) ; “이번에 우회서 각부에 돈 스십원씩을 나리시고 농상공부에는 오십원을 나리시고 궁녀서에는 이십원을 나리시고 각학교에는 합이백스십원을 나리시고 독립협회에는 이백원을 나리셨논디 (하략).”(1898.11.1.)

30) 당시의 각종 신문에는 정부의 재정궁핍과 외채의 위험성에 관한 논설과 기사가 계속해서 실렸다. 예컨대, “우리나라 형세로는 외치를 지는거시 대단히 위험 홀췌더러 또한 슬기롭지 못한 일이라. (중략) 지금은 부디 차관홀 생각을 말고 먼저 정부가 발나지고 빚성이 나라홀 위홀 줄 안 연후에 전표로 국치를 넘어 스업을 도모하여야 비로소 부국홀 방침을 도모호지, 엇지 되었던지 당장 계제 잇다고 차관 엇기를 쥬션호는 사롬은 후일 국가의 위티홀을 도라보지 안는 사롬으로 우리는 알겠노라.”(1898.10.15. 『제국신문』, 른설) ; “탁지부에 지정이 군식하여서 일전에 관세무스 빅탁안씨에게 십만원을 엇어서 오만원은 궁녀부로 보니고 오만원은 이월 월급에 보니여 쓰려하더라.”(1898.10.27. 『제국신문』, 잡보)

31) 박용욱, 앞의 책, p.79.

32) 『청풍김씨세보』(1989)에 따르면, 신소당은 養閭義塾 교장직을 역임하였다. 양윤의숙도 교육기관일 터인데 1910년 이후에 설립된 것이 아닌가 한다. 1910년까지 신문지상에서는 양윤의숙에 관한 기사를 찾을 수 없었다.

여성단체 가운데 핵심적인 조직이었다. 이 시기 신소당의 신문독자투고는 애국계몽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 된다.

㉑ 신소당이 1853년생이라면, 1900년대 중·후반에 신소당은 50대이다. 신소당의 활동은 애국계몽기에 설립된 최초의 여성단체인 女子教育會에서부터 두드러진다. 여자교육회는 1906년 6월에 개교한 여학교 養閨義塾의 후원을 위한 부인회로 출발하였는데, 그 규모와 활동이 전국적으로 支會를 둘 만큼 대단하였다.<sup>33)</sup> 신소당이 언제부터 여자교육회에 들어가 활동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자교육회 제10회 通常會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보면 신소당의 여자교육회 활동이 매우 적극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34)</sup> 이밖에 1907년 1월 18일 제12회 통상회에서는 ‘內外法 不可’라는 주제를 놓고 신소당이 右演議로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sup>35)</sup> 2월에는 여자교육회의 殖産商務課長에 선정되었다는 기사가 보인다.<sup>36)</sup>

評議員과 殖産商務課長으로 여자교육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신소당이 進明婦人會라는 새로운 여성단체를 조직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양규의숙의 운영난 때문이었다.<sup>37)</sup> 양규의숙은 1906년 말에 경비부족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었고, 12월 통상회에서 양규의숙의 일시 휴교가 결정된 상태였다. 그러한 와중에 신소당과 박영자 두 사람이 앞장서서 양규의숙 진흥을 위한 새로운 단체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이 단체가 바로 1907년 6월 15일에 개최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출범한 진명부인회다.<sup>38)</sup>

양규의숙 운영이 표면적인 이유였다면, 여자교육회가 李鈺卿을 총재로 선정하면서 친일화 경향을 강하게 띠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여자교육회 분

33) 박용옥, 앞의 책, pp.80~84.

34) 여자교육회에서는 매월 두 차례씩 정기집회인 통상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연설회와 토론회 방식으로 여성계몽에 관한 다양한 사안들이 논의되었다. 제10회 통상회에서는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評議員인 신소당의 발의가 세 건이고 재청이 한 건이었다. 신소당의 발의 안건은 여성복장개량, 회표 규칙, 재정문제로 인한 양규의숙 운영의 일시중지에 관한 것이었다.(1906.12.12., 「女會提議」, 『만세보』 참조)

35) 1907.1.17. 「女會討論」, 『황성신문』

36) 1907.2.22. 「女會任員」, 『만세보』

37) 박용옥, 앞의 책, p.107.

38) 1907.6.18. 「진명부인회를 하례함」, 『제국신문』

과와 진명부인회 설립의 가장 중요한 이면적 동기로 작용했을 것이다.<sup>39)</sup> 진명부인회는 애국계몽기에 ‘여성에 의해’ 독자적으로 설립된 최초의 여성 단체라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의를 갖는데,<sup>40)</sup> 제1회 총회 때 회장으로 선출된 이가 바로 신소당이였다.

진명부인회 설립에 앞서 1907년 봄은 국채보상운동으로 전국이 뜨거워 열기 가운데 있었다. 전국적으로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이 大邱 廣文社 회장 金光濟 등의 檄文<sup>41)</sup>에서 비롯되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당시 대한제국은 국채 1천3백만 원을 국고로 해결할 수 없는 처지였는데, 2천만 인민이 3개월 동안 斷煙하여 그 代金으로 국채보상을 위한 모금에 동참하자라는 내용의 격문이였다. 국채보상 여부는 곧 대한제국의 존망과 직결된 것으로 이해되었고, 여러 신문을 통해 국채보상운동의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sup>42)</sup>

국채보상의연금 모집을 위한 단체가 전국 각지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을 때, 여성이 주축을 이룬 단체는 2월말부터 6월까지 약 30개가 조직되었다.<sup>43)</sup> 大邱 南一洞에서 정운갑 母 徐氏 등 7인의 발기로 조직된 佩物廢止婦人會가 국채보상 여성단체 가운데 최초이다. 신소당을 중심으로 서울 北村의 양반가 부인들이 조직한 국채보상단체는 ‘大安洞 國債報償夫人會’라고 불렸다. 그 취지서를 보면, 애국성심과 신민의 도리를 내세워 여자들도 동심협력하여 참여한다는 대의만을 짧게 밝혔다.<sup>44)</sup> 국채보상부인회 사

39) 정경숙, 앞의 논문, pp.83~85.

40) 여자교육회는 설립시기나 규모 면에서 진명부인회보다 앞서지만, 회의 발기 주체는 秦學 胄, 秦學新 등 남성이 주도적이었다. 여자교육회의 운영에 있어서 특히 초기에는 단체운영 및 회의진행 등에 나선 여성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남성 贊務員들이 맡았다.(박용옥, 앞의 책, pp.106~109) 진명부인회가 여성들에 의해 발기·조직되고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약 1년 동안 여자교육회에서 쌓은 경험이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1) 1907.2.21. 「國債一千三萬圓報償趣旨書」, 『대한매일신보』

42) 최준, 「국채보상운동과 프레스 캠페인」, 『한국신문사논고』, 일조각, 1976, pp.106~109.

43) 박용옥, 앞의 책, pp.124~125, <표2> 참조.

44) “더저 국치로 허야금 나라히 더평치 못허옵실 바에야 여자도 국가우로즈탁을 입사와 인국 성심이 업사오면 신민의 도리가 아니오니, 여자등도 다쇼간 참네코져 동심합력이로쇼이다. 본회에 의금니시는 부인은 본회 회원으로 성칙에 올니고 씨명과 금익은 신문에 공포허깃 사오니 전국 동포부인은 조량허시옵. 광무 십일년 음녀 경미 경월일. 디안동 사무소 사십 통 사호. 발기인 리씨 송씨 박씨 개씨 염씨 한씨 덩씨 신씨 오씨 윤씨.”(1907.3.16. 「국치보

무소의 주소가 ‘대안동 40통 4호’라고 했는데, 이곳이 ‘故 판서 김규홍씨家’, 즉 신소당의 집이다.<sup>45)</sup> 그 취지서를 신소당이 직접 썼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대안동 국채보상부인회의 조직과 운영에 신소당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은 분명하다.<sup>46)</sup>

한편 이 시기 신소당의 신문투고에는 ‘대한제국의 臣民 된 자’로서의 의무에 대한 자각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sup>47)</sup> 다만, 1898년 투고에서는 ‘여자도 국민’이란 자각이 아직 뚜렷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드러난다면, 1907년 투고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약 10년의 시간적 거리를 두고, 부국강병과 보국안민의 주체로서 여성의 의무와 권리를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후대의 글들에서 확인된다. 국채보상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던 1907년에 신소당이 만세보에 투고한 ‘芙蓉 형에게 부치는 편지’에는 특히 그러한 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자료④] 【첩은 근본 평안도 안주사람으로 김판서 규홍씨를 종소호와 경성에 거성한 광음이 삼십년이라. 평심 한되는 바는 이 몸이 녀자도야 나라일을 못호야 보고 초목갓치 석을 신세를 생각한즉 오내일탐이촌장에 사뭇치더니, 다행이 우리나라】 턴도가 순환호사 국채보상에 민심이 든결도야 의무가 발달호오니 둔군 사천년과 입아도오백년에 여춘경행 처음이온지라. 이 몸이 비록 녀즈오나 이천만 동포 중에 참여한 몸이온즉 국가화육중 일물이라 국채보상부인회를 발괴설시

상부인회취지서, 『황성신문』

45) 國債報상에 對호야 南北村 某某家 夫人들이 會集호야 國債報상夫人會 事務所를 大안동 故 判書 金규洪씨 家에 定하고 義捐金을 募集하야 國債를 報상히즈 허고 熱心周旋하여 男子를 讓頭치 아니할 樣이라더라.(1907.3.6. 「不讓男子」, 『대한매일신보』); 安동 故 判書 金奎弘氏 家에서 婦人會를 設호았는디 國債義捐金 募集名錄을 官相 沈相薰氏가 借來閱覽호고 感淚가 交下호며 該名錄을 自己夫人과 別室에게 輪示호았다더라.(1907.3.8. 「官相感泣」, 『대한매일신보』)

46) 자료③에 “이몸이 녀즈오나 이천만 동포 중에 참여호은 몸이온즉 국가화육중 일물이라 국채보상 발괴호야 부인회를 설시호엿사오나” 하는 대목이 있다.

47) 예컨대, “우미호 녀즈들도 연설을 들러부니 충이지심 격발호나 녀즈 몸이 도엿스니 보국안민 할 수 잇소. 녀학교 설시호야 기명규칙 비은 후에 남즈와 동등되여 충군이국 목적숨 아 황실을 보호호고 민성을 구제호면 그 아니 조홀잇가.”(자료①); “本人은 一女子라 深處閨中호야 豈可曰 學界上 閱歷이 有호며 愛國思想이 有호다 호리요만는 國民一分子之義務는 男女가 一般이라. 故로 勸設一學校호니 其名曰 光東이라.”(자료⑥)

호얏삽더니, 동포부인께서 열심하시니 동동축축호은 마음이 일야간 심각하기를 애국성심은 남녀가 일반이오 경향이 업스온디, 항곡에서 었더호신 부인께서 성업을 성립호오서 일테합심호라노지 회소식 드르라고 각 신문 덤검터니, 천만 의외에 진주군 부용형이 애국부인회를 고동하시오니 (하략).

이 글은 晋州 愛國婦人會 발기인 芙蓉에게 보내는 서간 형식으로 되어 있다. 서울 대안동 국채보상부인회를 창설하여 모금운동에 앞장섰던 신소당은 각종 신문을 뒤져가면서 전국 각지 부인들의 국채보상운동 동참 소식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그런 와중에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부용의 글을<sup>48)</sup> 접하고는 부용의 애국심을 칭송하는 글을 써서 대한매일신보와 만세보에 투고한 것이다.<sup>49)</sup>

【】대목에는 나라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자의 신세를 안타까워하는 신소당의 의식이 직설적으로 표출되어 있다. 독립협회의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1898년에는 급변하는 정세에 대해 자기 나름의 時務論을 펴던 신소당이였다. 그 당시는 여학교 설립을 위한 부녀자들의 贊襄會 활동이 한창이었고 신소당 역시 그 취지에 심분 동조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지만, 신소당이 직접 찬양회의 일원으로 활동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1906년 여자교육회 활동과 광동학교 운영 등을 필두로, 이후 신소당이 애국계몽운동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는 앞서 논의한 바다. 여자이기 때문에 나라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초목과 같이 썩을 신세가 안타까워 그 한이 가슴에 사무쳤다는 한 마디 고백이 1907년 대안동 국채보상부인회와 진명부인회 등 신소당의 왕성한 행보를 대변한다.

‘芙蓉 형에게 부치는 편지’에는 신소당이 부용에 대해 느끼는 강한 동지에 또는 자매애가 표출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주의 名妓 부용은 3월 어느 날 儀鳳樓 아래를 지나다가 愛國償債會의 紳士들이 국채보상에 관하여 연설하는 것을 듣고서 이를 계기로 동료 기생들과 뜻을

48) 1907.3.20. 「芙蓉吐香」, 『대한매일신보』

49) 본문에서 인용한 4월 2일자 만세보의 기고문(자료④)은 3월 27일자 대한매일신보의 기고문(자료③)과 별 차이가 없다. 다만 부분적으로 어휘 선택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첫머리에

【】부분이 첨부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다.

모아 만든 것이 진주 애국부인회라고 소개하고, 강주식이란 자의 궤방으로 겪고 있는 고충을 적어 대한매일신보사에 투고하였다.<sup>50)</sup> 신소당은 그런 부용에 대해 “진주에는 논개씨가 있고 평양에는 계월향씨가 계신데,<sup>51)</sup> 애국 성심이 미진하여 형의 충의가 발달했다”고 칭송했다. 날개가 없어 곧 날아가 치하하지 못하지만 부용의 충의에 감동하지 않는 이가 없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강주식에 대해서는 만민의 죄인인요 나라에 도적이라 비판하고, 부용에게는 대의를 버리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부용을 계속해서 ‘형’이라 부르며 “형과 제와 같은 여자들도 國恩의 一萬分之一이라도 갚아 보자”고 말을 맺었다. 2장에서 신소당이 기녀 출신이 아닌가 의심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 몸이 비록 女子나 國家化育中一物’이라는 인식은 신소당만의 특별한 것은 물론 아니다. ‘國民의 의무는 男女가 一般’이란 구절은 특히 1905년 이후 애국계몽기 민족지들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투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였다. 여성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부국강병과 보국안민을 위한 근대화의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는 논리는 1900년 이전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한 애국계몽운동의 주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였고, 독립신문과 제국신문 등 각종 민족지들이 그러한 관념을 확산시키는 효과적인 매체로 기능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여자도 국민’이란 인식은 애당초 남성 근대론자들에 의해 여성들에게 주입된 측면이 크다.

‘여자도 국민’이란 인식은 여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부인회 또는 국채보상의연금 모집을 위한 부인회 등의 기본 이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표현상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각종 부인회의 취지서에는 나라를 위한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열망이 직·간접적으로 표출되어 있다.<sup>52)</sup>

50) 1907.3.20. 『芙蓉吐香』, 『대한매일신보』

51) 진주의 論介와 평양의 桂月香은 임진왜란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기녀의 상징이다. 논개가 敵將의 허리를 안고 礮石樓 또는 義巖 아래 벼랑으로 떨어져 죽었다는 일화나, 계월향이 金景瑞를 도와 倭將의 목을 베고 자신도 죽게 된 일화는 신소당 생존시에도 매우 유명했던 것 같다. 한편 일제 때 達成의 기생 玄桂玉이 논개와 계월향의 티룩한 사당을 중수하려다 여러 차례 고문을 당했다는 일화도 전한다.(이능화 지음, 이재곤 옮김, 『조선해어화사』, 동문선, 1992, pp.390~391, pp.422~425)

52) “우리가 함기 녀자 몸으로 규문에 처호와 삼종지위에 간섭할사 무기업사오나 나라 위헌난

그러나 남성지식인들에 의해 주입된 ‘여자도 국민’이란 관용구가 당시 여성들의 입에서 회자될 때 그 함의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애국계몽기에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나 대외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국민 된 의무’를 앞세우는 것은 내외법과 남녀유별관에 근거한 전통적인 성역할 관념에 대하여 당대 여성이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방편이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07년이면 신소당의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막내 아들 鎭珪도 열살이 넘었다. 10년 전 제국신문에 첫 투고를 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컸을 것이다. 부용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보듯, 신소당은 국채보상운동에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럴 만한 여유가 있었던 것 같다.<sup>53)</sup> 회장의 적극성 때문인지 대안동 국채보상부인회는 지방 각처의 개인과 단체의 호응을 얻어 종종 그 활동상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기도 했다.<sup>54)</sup> 신소당의 부인회 활동은 1907년 국채보상운동의 열기에 동승한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10년 전 제국신문 투고에 스며있던 애국계몽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겠다.

㉒ 신소당이 “國民一分子之義務는 男女가 一般”이란 인식을 실천으로 옮긴<sup>55)</sup> 또 다른 방식은 바로 교육운동에 힘쓰는 것이었다. 광동학교는 신소당이 빈한한 아동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가르치며 自費로 운영하

마음과 빚성된 도리에나 엇지 남녀가 다르리오.”(1907.3.8. 「경교아부인동포라」, 『대한매일신보』); “조흔다 우리 디한부인들이여. 돈기 이후 사천여지에 외문만 숭상하고 니의의 구별이 업숙하야 빅년을 살지라도 규문 니에 심장하야 녀공은 방적침선과 경구지역에 지나지 못하니 엇지 유지군자의 기탄홀 비 아니리오.”(1907.4.25. 「進明婦人會設立」, 『만세보』)

53) 安東 夫人會長 申蕭堂氏가 國債報償總合所에 新貨 五圓을 寄付하고 經費를 補用하라 하얏다더라.(1907.5.29. 「夫人特捐」, 『대한매일신보』)

54) 예컨대, 강화군에 사는 진 의관 민준식의 부인 장씨가 국채보상부인회로 新貨 1원을 보내자 그 성심을 기려 국채보상부인회에서 강화군에도 부인회를 설치하라는 公函을 보낸 일이 있다.(1907.3.17. 「國債報償熱心」, 『만세보』) 또한 여성 개인이 국채보상부인회로 의연금 을 보내면서 부인회의 활동을 격려하고 찬양하는 公函을 함께 보낸 경우도 종종 있었다.(1907.3.19. 「趙氏送函」, 『만세보』; 1907.3.21. 「우씨송함」, 『대한매일신보』)

55) “本人은 一女子라 深處閨中하야 豈可曰 學界上 閱歷이 有하며 愛國思想이 有하디 하리오 만는 國民一分子之義務는 男女가 一般이라. 故로 勸設一學校하니 其名曰 光東이라.”(자료 ⑥)

기 시작한 소학교이다. 학교 규모가 나날이 성장하여 5월8일에는 학도의 수가 40여 명에 이르렀다. 신소당이 교장, 李儒의 부인 李一貞이 교감, 진명부인회에도 동참했던 朴英子가 학감을 맡았다.<sup>56)</sup> 1909년 황성신문에 투고한 「申氏公函」을 보면, 신소당이 그동안 광동학교 운영에 얼마나 애착과 사명감을 갖고 열심이었던가를 엿볼 수 있다.

자료⑥에 따르면, 광동학교를 설립하여 자비로 운영한 지 약 4년에 신소당은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할 재정능력이 없어 유지 방안을 새로이 찾아야 했다. 이를 위해 “社會에 公佈哀乞하고 學校維持를 請求” 하던 중<sup>57)</sup> 안동 김씨 宗中에서 공익사업의 차원에서 광동학교를 인수하겠다고 자청하였고, 1909년 초에 신소당은 교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런데 8~9개월 뒤에 새 교장 金奎東은 광동학교 폐교를 공포하였고, 신소당이 이에 분개하여 대안동 40통 4호 자택에서 ‘公益妨害整理會’를 연다는 내용의 公函을 황성신문사에 보낸 것이다. 신소당은 애당초 인수계약서에 학교유지를 첫째 조건으로 약조하였는데, 채 1년이 안 돼서 폐교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전 교장인 자신에게 일언반구 의논도 없었고 다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지도 않은 채 학교문을 닫는 것은 “公益思想이 蔑如”한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자료⑥] 至於學校하야는 一人이 設立하고 衆人이 引繼라도 此非個人私分的 事業이라. 卽一正大公益 則 廢校된 以上에는 此豈非全國公益上一大缺點也리오. 況且 自己가 該校를 勸立設備하고 學生을 募集教授하던 學校라도 如此無理한 道理가 無커던 公益上 維持責任을 擔負하고 如此悖行이 有호즉 公益上 一大罪人이 可乎아 否乎아.

신소당에게 있어서 학교설립과 운영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公益사업이었다. 한 개인이 학교를 세우고 또 다른 개인에게 그 운영권을 넘긴다 해도

56) 1907.3.16. 「光東學校」, 『제국신문』; 1907.5.8. 「婦人設校」, 『만세보』

57) 학교 유지회를 조직하는 등 광동학교 운영을 위해 신소당이 애쓰던 사정이 대한매일신보에 기사화된 바 있다.(1908.11.24. 「유지회조직」; 1908.12.01. 「유지회퇴정」, 『대한매일신보』)

그것은 개인의 사사로운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학교 유지의 책임을 떠맡고서 너무나 쉽게 폐교를 결정한 것은 공익상의 큰 죄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이미 광동학교의 교장직을 내 놓은 상태에서도 “하귀 방학에 각 녀학교 학생들이 공부에 방심될가 녀려호야 즈귀 스테에 하귀강습소를 설호고 고명호 강사를 연빙호야” 매일 두 시간 씩 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여학도를 모집했던 신소당이다.<sup>58)</sup> 광동학교의 폐교처분에 대해 신소당이 얼마나 분개하고 안타까워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신소당이 운영했던 광동학교나 교장직을 맡은 양정여학교·양윤의숙 등에서 실제로 어떤 과목들을 가르쳤는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자교육회가 친일화 경향을 보이자 여기서 독립하여 진명부인회를 설립하고 국채보상부인회를 주도하는 등 신소당의 이력을 볼 때, 그 교육의 기본이념은 당시 민족진영의 애국계몽정신에 입각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후생을 기르는 사업이 존망의 위기에 처한 국가를 살리는 한 방편이었음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려 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 보통교육에서 산술과목을 긴요하게 여긴 점을<sup>59)</sup> 미루어 신소당이 교육의 실용성을 중시하지 않았는가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신소당은 국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여학생 교육에서 국문에 비중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신소당은 일찍이 “날마다 신문 보니 논설마다 절당 일세”<sup>60)</sup>라 탄복하며 신문읽기를 즐겼으며 급기야 제국신문에 자신의 소견을 밝히는 글을 지어 보냈다. 국채보상운동이 한창일 때는 다른 지역 여성들의 활동 소식을 들으려고 여러 신문을 ‘점검’했<sup>61)</sup> 신소당이다. 자료⑤는 단편적이거나 국문의 가치에 대한 신소당의 인식을 담고 있다.

58) 1909.6.10. 「하귀강습소」, 『대한매일신보』

59) “보통과중에 매일 긴요호 산술을 전문으로 교수코져 호야”(1909.6.10. 「하귀강습소」, 『대한매일신보』)

60) 자료①

61) “향곡에서 었더호신 부인게서 스업을 성립호호서 일테합심 호라는지 회소식 드르라고 각 신문 담겨터니”(자료④)

[자료⑤] 귀사에서 춘추필법으로 세계에 과유명네하야 비록 녀인이라도 누가 흡승치 아니흐며 누가 열람키 원흐지 아니흐리요. 문은 한문을 미히흡으로 단지 찬송뿐이러니 근일에 귀사에서 부인사회와 보통사회를 위하야 국문신보를 특별이 발간하신다. 호오니 감스막대하오며 우리나라의 무론무론 남녀로소 하고 일노부터 문명의 공의를 흡수하겟스오니 우리 동포의 문명진보와 갖치 귀사에서도 흥왕진보 되심을 응축이오며 귀사에서 권장호고 면려호시는 열성에 대하야 찬하 불이 호노이다.

1907년 5월 23일 대한매일신보에 신소당이 투고한 이 글은 바로 대한매일신보의 국문판 간행을 감축하는 내용이다. 신소당은 국문판 간행을 ‘부인사회와 보통사회를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당시로서 특별한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신소당은 그 자신이 계몽의 대상이 되는 여성이면서 동시에 여성교육운동에 앞장섰던 실천가였다. 국문이 부인사회와 보통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발언이 신소당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동어반복일 수 없다. 진명부인회와 국채보상부인회 등에서 여성의 애국계몽운동을 이끌고 있었던 신소당에게 국문신문이 하나 더 간행된다는 사실은 분명 感謝莫大한 일이었을 것이다.

#### 4. 맺음말 : 여성어문생활사적 위상

1898년 11월 신소당의 제국신문 투고 이전에, 여성독자의 신문투고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개인간의 利害에 관련된 고발 또는 탄원의 성격을 갖는 여성독자투고를 독립신문에서 몇 차례 발견할 수 있다. 독립신문의 독자투고는 개인의 私的 이해에 관련된 ‘현실모순 타개책’과, 공공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는 ‘근대화 시책’으로 대별된다.<sup>62)</sup> 예컨대,

62) 서순화에 따르면, 독립신문 독자투고의 내용은 크게 ‘현실모순 타개책’과 ‘근대화 시책’으로 대별된다. ‘현실모순 타개책’의 독자투고는 관리의 부정고발이나 해명, 재판불공정 탄원, 개인재산 및 채권분쟁 탄원 등 국민 개개인 또는 국민과 관리·관청 사이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 주를 이룬다. 반면에 ‘근대화 시책’의 독자투고는 공동이익에 관련된 제도

평강군 현내면에 사는 강경선의 처 박소사가 김순경의 모해로 인한 억울한 사연을 적어서 신문사에 보내는 경우가 전자에 속한다.<sup>63)</sup> 그런데 이러한 독자투고를 바탕으로 한 기사들은 대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독자의 ‘투고문’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런 경우 독자투고는 일종의 기사 거리 제공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반면에 신소당의 투고는 후자에 속하는데, 이런 경우는 투고문 전체를 그대로 게재하고 처음과 끝이 대체로 명확하다. 따라서 이 시기 ‘여성의 글쓰기’ 사례로 논의할 수 있는 독자투고는 이른바 ‘근대화 시책’으로 구분되는 자료들이라 할 수 있고, 1898년 신소당의 제국신문 투고는 그 가운데 최초가 된다.

1898년 11월은 제국신문이 창간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았을 시점이다. 독립신문과 마찬가지로 제국신문에도 창간호부터 ‘누구든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적어서 보내라’ 하는 독자투고를 유도하는 광고가 여러 차례 나왔지만,<sup>64)</sup> 아직 제국신문에 여성독자의 투고가 실린 사례는 없었다. 독자투고는 반드시 거주지와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되었는데,<sup>65)</sup> 양반 가문에 속한 부녀자가 신문지상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공적 발언을 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소당이 신문투고를 감행할 수 있었던 원인은 신소당의 개인적인 특성과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맞물린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신소당의 시대인식과 참여의식이 남달랐음은 1905년 이후에 보여준 그녀의 행적이 입증하는 바,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자신의 말을 보태고 싶은 욕구가 신문투고라는 형식으로 발현된 것이라 이해된다. 신문투고라는 ‘새로운’ 글쓰기 형식이 신소당처럼 사회참여의식이 높은 여성들에게는 낯설지만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1898년 당시 신소당은 30~40대 중년의 나이였고 첩이라는 신분상 좀더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계

적 차원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한 것이다.(서순화, 앞의 논문, pp.46~50)

63) 1897.8.21. 『독립신문』

64) “누구든지 신문에 괴록할 스건이 잇거든 소상히 적어 본사 투합통에 너으시되 거주와 성명이 분명치 아니하면 너이지 아니 할터이오.”(1898.8.10. 『제국신문』, 광고)

65) 일단 신문사측에서 투고자의 신분을 확인한 하면 투고자의 요청에 따라 신문지상에는 익명으로 게재하는 경우도 흔했다고 한다.(서순화, 앞의 논문, pp.11~12)

다가 北村 부녀자들이 중심이 되어 여학교 설립을 주장하는 通文을 돌린 것이 같은 해 9월,<sup>66)</sup> 관립여학교 설립 청원 상소를 올려 고종의 批答을 받아낸 것이 10월의 일이었다.<sup>67)</sup> 養成堂 李氏, 養賢堂 金氏 등을 중심으로 한 贊襄會 회원들의 여학교 설립 운동은 독립신문, 제국신문 등 각종 신문에 며칠 동안 대서특필된 일대 사건이었다. 신소당의 첫 투고가 11월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닌 듯하다.

신소당이 처음으로 투고할 용기를 내는 데는 제국신문이 특별히 부녀자를 위한 신문이라는 사회적 인식도 한 몫을 했을 터이다. 제국신문은 사장 李鍾一이 애당초 ‘婦女子啓蒙紙’를 염두에 두고 창간한 신문이었다.<sup>68)</sup> 제국신문은 황성신문과 대비되어 각각 ‘암신문’과 ‘숫신문’으로 불리기도 했다.<sup>69)</sup> 이는 국문과 국한문혼용이란 표기문자의 차이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신문을 ‘부녀자를 위한 신문’으로 인식했던 당대인의 인식을 반영한다. 애초에 제국신문을 국문으로 간행한 것 또한 여성을 주요 독자층으로 상정한 때문이었다.<sup>70)</sup>

제국신문에 실린 투고문 2편은 4·4조 가사체가 뚜렷하여<sup>71)</sup> 신소당의 글쓰기가 규방가사의 전통 내에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신문독자투고라는 글쓰기 형식의 새로움과 문명개화를 화두로 삼은 글쓰기 내용의 새

66) 1898.9.8. 「五百年有」, 『황성신문』; 1898.9.9. 「녀학교」, 『독립신문』; 1898.9.9. 「제국신문」, 잡보; 1898.9.13. 「제국신문」, 논설.

67) 1898.10.13. 「부인상소」, 『독립신문』; 같은 날짜 제국신문과 황성신문에도 상소 전문이 실렸다.

68) 제국신문사 사장 李鍾一(1858~1925)이 신문을 통한 여성계몽에 유의했음은 그의 遺稿 『默菴備忘錄』 곳곳에서 발견된다. “獨立新聞者, 先導民衆之本, 而未到婦女子層開明, 故按若刊新聞, 則必決創刊起婦女子啓蒙紙.”(『默菴備忘錄』, 1898.1.10.)

69) 최기영, 「제국신문의 간행과 하층민 계몽」, 『대한제국시기 신문 연구』, 일조각, 1991, p.11.

70) “柳永錫同志來訪, 創刊新聞事業協議次, 余之意見, 則讀者層即好示婦女子也. 柳曰, 銘心沃坡之高見, 而去.”(『默菴備忘錄』, 1898.6.12.); “李鍾冕·柳永錫·張孝根新聞同人相面於帝國新聞社屋內, 發刊準備大奔走, 余曰, 體制則爲婦女子階層, 純國文(한글)使用, 最緊要事也, 多曰, 沃坡意見大贊成也.”(『默菴備忘錄』, 1898.8.1.)

71) 4·4조 가사체가 갖는 대중적 친화력을 고려할 때, 대한매일신보 국문판이 가사 및 가사체를 대폭 수용한 것을 두고 애국계몽운동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실천으로 해석하기도 한다.(길진숙, 「대한매일신보 시사평론란 가사 연구」, 『한국가사문학연구』(정재호 편저), 태학사, 1996, p.622)

로움은 한국여성의 어문생활이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고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 된다. 여성이 公의 경로를 통하여, 公的 사안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히면서, 동시에 익명성을 탈피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의 그러한 글쓰기는 전통사회에서 ‘공식적 금지’의 대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한제국기에 이르러 ‘언문’이 ‘국문’의 지위를 얻고, “國民一分子之義務는 男女가 一般”<sup>72)</sup>인 시대가 도래하였다. 여성어문생활을 여러 측면에서 통제했던 ‘공식적 금지’가 풀리고 ‘공식적 승인’이 公論이 된 것이다. 신소당의 신문투고는 여성의 언어문자생활에 일어난 그러한 변화 가운데 있다.

본고에서는 청풍김씨세보와 당시 신문들을 참조하여 신소당의 생애를 考究하고 신소당의 신문독자투고가 애국계몽의식의 실천과 궤를 같이함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여성문학사가 김명순·나혜석·김원주의 시대로 들어서기 직전, 전통사회의 여성어문생활이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는 지점에 대한 탐색의 일부다. 사회·정치적으로 격동의 시대였던 대한제국기는 여성의 언어문자생활에도 적지 않은 변동이 일었던 시기라고 생각한다. 신소당처럼 신문투고의 형식을 빌어 근대계몽담론에 동참했던 여성독자들의 존재가 대한제국기 각종 신문들에서 적지 않게 발견되는바,<sup>73)</sup> 이 시기 여성들의 신문읽기와 독자투고는 한국여성어문생활사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현상이다. 신소당은 신문을 통해 세상을 읽고 신문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세상에 공표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신소당의 신문읽기와 독자투고를 한국여성문학사 근대의 첫머리에 자리매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

72) 1910.10.20. 「申氏公函」, 『황성신문』

73) 줄고, 앞의 논문, 참조.

참고문헌

『독립신문』·『제국신문』·『대한매일신보』·『만세보』·『황성신문』  
 『默菴備忘錄』(『한국사상』 16, 한국사상연구회, 1978. 수록)  
 『조선해어회사』(이능화 지음, 이재곤 옮김), 동문선, 1992.  
 『淸風金氏世譜』 己未譜(1919)·戊戌譜(1958)·己巳譜(1989)  
 『平山申氏大同譜』 丙辰譜(1976)  
 『한국여성관계자료집: 근대편』 상·하(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편), 이화여  
 자대학교출판부, 1979/1980.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1』, 민음사, 2002.  
 길진숙, 『대한매일신보 시사평론란 가사 연구』, 『한국가사문학연구』(정재호 편저),  
 태학사, 1996.  
 김영철, 『개화기 시가의 창작계층』, 『근대문학연구』 1, 지학사, 1987.  
 박용욱, 『한국근대여성운동사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서순화, 『독립신문의 독자투고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유영렬, 『대한제국기의 민족운동』, 일조각, 1997.  
 이경하, 『제국신문 여성독자투고에 나타난 근대계몽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  
 구』 8, 2004.6.(간행예정)  
 정경숙, 『대한제국과 진명부인회의 조직과 사상』, 『대한제국연구』V, 이화여자대학  
 교 한국문화연구원, 1986.  
 채백, 『독립신문 독자투고의 현황과 특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 사회』 3, 1994.  
 최기영, 『제국신문의 간행과 하층민 계몽』, 『대한제국시기 신문 연구』, 일조각,  
 1991.  
 최준, 『국채보상운동과 프레스 캠페인』, 『한국신문사논고』, 일조각, 1976..  
 홍찬기, 『개화기 한국사회의 신문독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언론』 7, 1996.

## A Contributor to Newspapers in the 1900s, Sin-Sodang 申蕭堂

Lee, Kyung-ha

As a case of women's reading and writing, I focused in a literary life of *Sin-Sodang*(申蕭堂), who had contributed to several newspapers six times in 1898 to 1909. She was an active woman who eagerly participated with the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in 1905~1910, leading women's organizations such as *Jinmyeong-buinbye*(진명부인회) and establishing a school. Looking into her genealogy, I found a few important information about her private life. She was born in 1853 or 1869 and died in 1930. She was a second wife of the upper class statesman and had four sons. I doubt she had been a concubine before her marriage.

Her contribution on November 5, 1898 in *Jeguk-simmun*(제국신문) was the first that women's writing was published in a readers column in modern newspapers. In that contribution, *Sin-Sodang* announced her opinion about political affairs, when the late *Choson* Dynasty was like a chaos politically at that time. The six contributions to newspapers seemed to be her another practice of the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It was an important event in women's literary history that women readers like *Sin-Sodang* had begun announcing their opinion in public by readers columns in the 1900s.